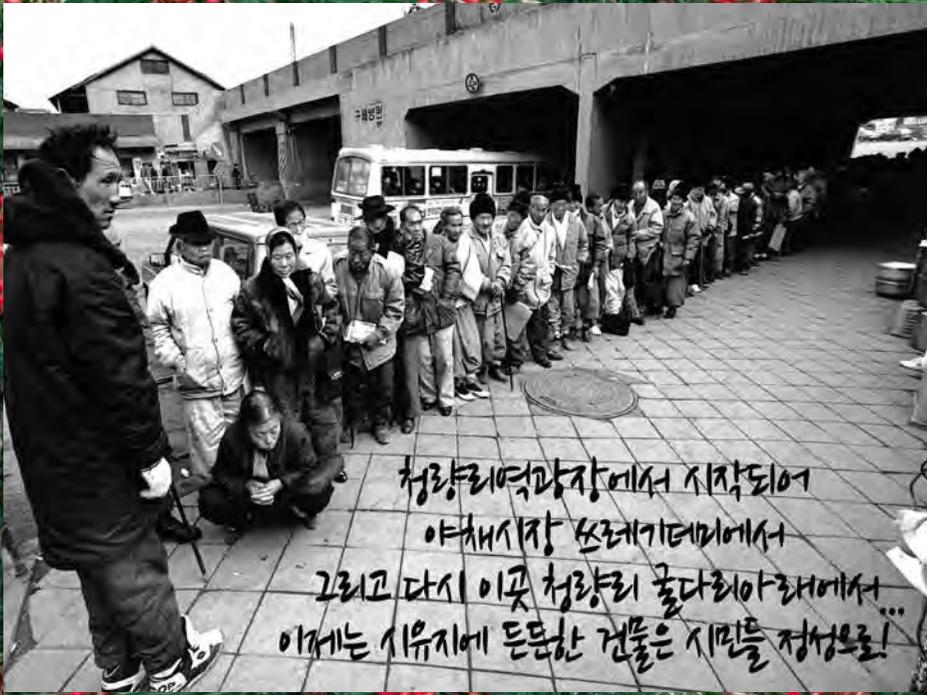




# DAIL COMMUNITY

함퍼 재건축으로 배고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C · O · N · T · E · N · T · S



## 다일공동체 30주년,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며...

30년 전 청량리 역 광장에 쓰러져 있던 함경도 할아버지, 나흘씩이나 굶어 지쳐서 기력을 잃고 쓰러진 그에게 다정한 청년 최일도는 그의 손을 잡았고, 부축해서 설농탕 한 그릇을 사드렸습니다. 그 밥 한 그릇으로 굶주렸던 함경도 할아버지는 배부름을 얻으셨고, 그 날 그 만남과 밥 한 그릇의 나눔을 계기로 저는 독일유학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밥을 퍼주고 있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일에 이미 천만 그릇의 나눔을 돌파하여 지금은 천만 그릇을 훨씬 넘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지만 밥퍼는 30년 동안 여전히 가 건물에서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청량리 야채시장에서, 청량리 역광장에서, 청량리 쌍굴다리에서, 그리고 쌍굴다리 옆에서 비를 피하고, 앉아서 밥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는 했지만 서울시 유지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은 가 건물에서 그리고 주변의 발전에 넘비시설로 전락될 위기감을 안고 지금도 밥퍼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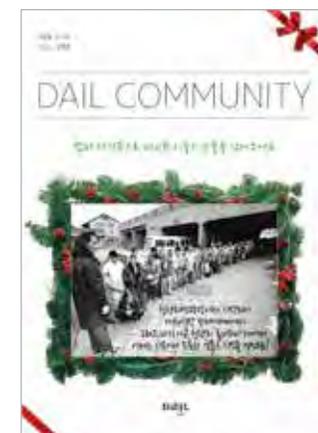
밥퍼가 3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밥만 나누어 배고픔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과 삶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복지 타운으로서 밥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밥퍼 재건축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밥상공동체 가족들의 눈물겨운 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일의 사역을 응원해온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임을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일공동체 창립 30주년을 맞는 11월 11일 11시에는 밥퍼 주변에 살고 있는 무의탁 노인들과 쪽방촌 가족들, 노숙인 형제들, 원근각처에서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이 밥퍼 마당에 모여서 밥퍼 30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퍼 30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이 배부르게 먹었던 벵세다 들녘의 잔치와 같았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지난 30년간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일봉사대상 시상으로 감사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일체 은혜 감사뿐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도 새롭게 건축되는 밥퍼와 함께 사랑의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 갈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나눔과 섬김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작은형제, *힐링* 올림

- 02 창립 30주년 특집 - 밥퍼 재건축에 힘이 되어 주세요!
- 04 review 1 - 다일공동체 창립 30주년,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 06 review 2 - 창립 30주년 기념 다일봉사대상 시상과 감사의 밤
- 08 news -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10 분원소식
  - 10 중국
  - 12 캄보디아
  - 14 베트남
  - 16 필리핀
  - 18 네팔
  - 20 우간다
  - 22 탄자니아
  - 24 미국
- 26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28 밥퍼나눔운동본부
- 31 아동결연 크리스마스 인사
- 3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6 신규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 38 후원 신청서
- 40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COVER STORY**  
청량리역 광장에서 시작되어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그리고 다시 이곳 청량리 굴다리 아래에서 이어졌던 밥퍼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든든한 건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발행인   최일도	편집장   김연수	편집위원   박찬미, 이순선	디자인·인쇄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다일복지재단	주소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02-2212-8004	팩스   02-2243-8032	홈페이지   www.dail.org	

## 밥퍼 재건축에 힘이 되어 주세요!

서울에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갈수록 수도, 서울에 자기 이름의 땅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지거나 점점 더 열악한 주거 공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매일 밥퍼를 찾아와 하루 한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밥상공동체 가족들의 사정 또한 그러합니다.

대부분이 쪽방이나 임대 셋방에 사시는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그런 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라 서울 시 외곽에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동두천, 파주, 문산 인천 남양주 등등 지하철을 타고 두 시간 세 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도 꾸준히 밥퍼까지 찾아오고 계십니다. 경로 우대 제도 안에 지하철이 무료라는 것이 참 고맙다고 이분들은 고백하십니다.

서울 시내에 한 평의 땅도 자기 이름으로 가져보지 못한 밥상공동체 가족들에게 맘 편히 지속적으로 한 그릇의 밥을 나눌 수 있는 등기되어 있는 밥퍼 건물을 선물해 주십시오. 다일공동체가 지은 현재 밥퍼 건물은 서울시의 땅에 임시로 지어진 임시 가건물입니다. 임시 가

건물로 지어졌기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흔들리지 않는 영구 건물로 짓지 못하고 판넬을 사용하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2층에 엘리베이터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몸이 무겁고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은 밥퍼 이층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1층에서 식사를 하시며 서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층에서 문화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밥퍼 건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일천사병원 일부를 쓰고 있는 병든 노숙인들을 위한 마지막 쉼터인 다일작은천국도 이번 기회에 그 원래의 자리인 밥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청량리 일대는 서울에서도 가장 빈민들이 살기 좋은 작은 쪽방들과 저렴한 숙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청량리 일대가 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재건축되어 가고 있고 이 재개발의 물결 속에서 서울시에서는 밥퍼 나눔운동본부 결 사유지와 밥퍼 마당 많은 부분을 수용



하여 복지관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 새로운 꿈을 꾸는 밥퍼

다일공동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층빌딩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그늘은 더 깊어지고 서울의 빌딩숲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아픔은 더 커집니다. 그러기에 고층아파트와 빌딩으로 재개발 되는 청량리에 밥퍼가 자기명의를 가진 든든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소외된 밥상공동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모아지고 그 정성에 의해 건물이

세워지고 그 명의를 밥상공동체 가족들이 내 집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밥퍼재건축의 첫 후원금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난한 목회자의 헌금 천사만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천사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어린 천사의 마음으로 밥퍼가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헌금한 그 귀한 뜻을 살려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밥퍼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 밥퍼 재건축 후원 문의

전화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9676(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 다일공동체 창립 30주년,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



2018년 11월 11일은 **다일공동체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을 지나 커다란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 길거리에서 밥을 나누던 그 때에도, 밥퍼나눔운동본부는 물론 천사병원과 해외 본원이 생겨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면 다일공동체는 지금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오전에는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감사 예배의 시간을, 저녁에는 오랫동안 다일을 섬겨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일봉사대상 시상식을 마련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는 30주년을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많은 이웃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해군홍보단과 색소폰 선교단의 공연으로 본격적인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훌륭한 연주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날 사단법인 PPL 재단의 이사장인 김동호 목사님께서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밥퍼는 사랑의 나눔이 있기에 교회며, 이후 세대에도 밥퍼가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세대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를 지속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다일을 후원해 주신 세무법인 석성과 해군본부도 올해가 창립 30주년이 되어서 더불어 같이 축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이어질 '생명의 쌀 이어가기'와 해군홍보단의 축하공연 후, 새벽부터 밥퍼 앞에 오셔서 줄을 서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힘내시라는 의미로 따뜻한 내의**

**와 도시락, 간식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준비한 저희도, 함께 해준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 감사와 동행

- 다일봉사대상 시상과 감사의 밤 -



11월 11일 저녁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그동안 다일공동체를 오랫동안 섬겨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감사의 밤 행사 '다일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래퍼 SAN E와 FC 서울 채가혜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감사의 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축하와 한국 소리꾼의 거장인 장사익 선생님의 공연으로 더욱 뜨겁게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일봉사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대상 심사위원장



을 맡아주신 박종삼 전 월드비전 회장님께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시상식이 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씀해 주시며 10년 이상 꾸준히 봉사하신 분들, 생명 살리는 일에 공헌하신 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헌신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체 봉사 15팀, 개인봉사 15팀 그리고 특별상 2팀께 정성껏 준비한 상장과 상패, 그리고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감격스럽고 영광스런 순간이었습니다. 클래식 보컬그룹 유엔젤보이스의 힘차고 아름다운 축하공연에 이어 김종운님, 김동열님의 수상 소감을 들었습니다. 밥퍼로 신혼여행을 오셔서 지금까지도 온 가족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신 김종운님 가족, 그리



고 서울메트로 기관사일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오셔서 봉사하시는 김동열님의 사연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원 홍보대사님과 최일도 목사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특별히 밥퍼 건물 재건축에 대한 후원 안내를 하셨습니다. 밥퍼 재건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후원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가 30년 동안 여러 사역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다일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과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커다란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입니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다일공동체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 각 분야의 학문적인 시선으로 돌아보는 다일공동체 30주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소강당(주기철 기념관 내)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학술대회는, 각 주제별 발제자가 논문 발표를 하고 논찬자가 논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종삼 박사(전 월드비전 회장)가 학술대회 총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오성춘



제 1주제를 맡아 발표한 조한상 박사(부산 장신대학교 교수)는 다일공동체 30년 사역을 영성신학적 의미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일영성수련이 다일공동체 사역의 영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조한상



제 2주제는 다일공동체 30년 사역의 사회복지학적 의미로, 유장춘 박사(한동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다일의 사회복지실천을 참신하게 풀어내며, 다일 사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유장춘



제 3주제를 담당한 노치준 박사(광주영림교회 목사)는 다일공동체 30년 사역의 사회윤리학적 의미를 발표하였습니다. 밥퍼에 식사를 하러 오는 '밥상 공동체'와 밥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밥 피스메이커' 운동을 중심으로 다일 사역의 뿌리인 '밥'과 평화를 논하였습니다. - 노치준



마지막 제 4주제를 맡은 김현진 박사(평택대학교 교수)는 다일공동체 30년 사역의 역사종교적 의미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정의와 역사, 그에 따른 교회 공동체의 의미

를 다일공동체 30년에 접목시켜 풀어내었습니다. - 김현진



신학·사회복지학의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정의내린 다일공동체의 이번 학술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박종삼 박사는 "다일공동체의 사역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며 "다일공동체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더 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브랜드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총평하였습니다. - 박종삼



이러한 각 분야의 대표들의 말씀을 들어서 다일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께서서는 "지적과 충고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발제자, 논찬자, 박종삼 박사님 그리고 좌장을 맡으신 오성춘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사역과 더불어 학문적인 검증과 비판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최일도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회원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발송일시	구분	후원금 공제범위
1월 중 요청자에 한하여 우편 발송	개인 (주민등록번호)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공제

###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복지재단(국내후원)은 비영리법인, 데일리다일(해외후원)은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각각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 계좌로 입금하신 경우는 다일복지재단 명의로, 데일리다일 계좌로 입금하신 경우는 데일리다일 명의로 발급됩니다.)

#### Q. 기부금 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법인단체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입금자명과 후원자 본인의 명의를 동일해야 합니다.

####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 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작년에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다일공동체는 2018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절감된 비용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1)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등록된 분에 한하여, 2019년 1월 중순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 2)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ail.org](http://www.dail.org) 접속 ->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출력  
(단,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계좌로 후원하신 회원은 홈페이지 준비 중으로 02-2212-8004로 직접 연락하셔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 CHINA

## 중다일 단톡방 이야기

가을이오고 겨울이 되면 중다일 졸업생 위챗 단톡방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끄럽습니다. 유난히 생일들이 가을 겨울에 몰려있고 결혼, 결혼한 가정의 자녀 생일, 백일 등, 거의 10월에서 12월에 몰려있어 비록 멀리 있어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축하하고 사진을 공유하며 조잘

조잘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서기위해 또는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텐데... 때마다 서로 서로 나누며 축복의 메시지와 응원의 글들, 농담들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 중다일 애심회 정기모임

중국다일공동체 애심회 가족들은 중국 각지와 한국, 캄보디아등 곳곳에 흩어져있어 주로 다같이 모일수 있는 경우는 중국의 춘절(한국의 구정)기간이라 매년 이때 주로 큰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에 1번이라 우선 훈춘지역에 살고 있는 중다일 애심회 가족끼리 만이라도 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모여 구체적 활동들을 하기로 하고 진행중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동생들을 지원하는것에 제한하지 않고 보다 넓게 중다일 애심회에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애심회 정기모임

## 왕하이버 입소

중다일 애심회 남자 숙소에 왕하이버가 새로 들어와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춘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몇 달전 훈춘으로 돌아와 친구와 자취를 하다가 새로 직장을 잡으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이트, 요짱, 왕하이버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적 다일어린 이집에서 함께 살았기에 공동체 생활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오히려 시끌시끌 생기가 있어 보여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는 적지만 중다일을 위한 정기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실천중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 2018년 서른 한 번째 거리성탄예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1988년 12월 25일,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노숙인 3명과 한 젊은이가 촛불을 밝혀들면서 시작한 거리성탄예배입니다. 추운 겨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길.....



- 일시** 2018년 12월 25일 (화) 오전 11시
- 장소**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31449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 나눔내용** "사랑의 방한복 나눔" 1구좌
  - 3만원 : 방한복 1벌
  - 5만원 : 방한복 1벌 + 월동키트



"사랑의 밥퍼 나눔" 1일 배식비 1구좌 : 300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02-2214-0365

 캄보디아 CAMBODIA

# 맑고 고운 소리, 사랑의 울림이 프놈끄라움에!

살롬!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인사드립니다!

9월의 어느 날, 캄보디아 프놈끄라움 마을에 맑고 고운 악기와 노랫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빵피’와 ‘배 지원 사업’, 또 2017년 희망여행을 통한 ‘돛 도서관’까지 캄보디아를 위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매년 함께해주고 계시는 하나투어에서 충남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예술희망여행팀을 꾸려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희망여행팀 COA Project(Dynamic Bounce)은 현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중과 공유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대체적으로 느리다는 인식을 가진 ‘충남’, 그리고 충남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에 버스킹을 통해 지역에 문화예술을 통한 역동성과 활기를 불어넣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마다 밥퍼에서 미리 배부한 음악회 티켓을 가지고 마을입구의 커다란 나무창고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웅기종기 자리에 앉아서 처음 듣는 고요한 연주와 클래식 음악에 집중하는가 싶더니 10분여가 지나자 클래식의 연주 선율과, 아이들의 소리가 화음이 되어 더위를 거뜬히 이기고 남을 열기로 음악회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1 문화예술여행



2 문화예술여행



3 문화예술여행

바이올린과 기타, 건반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연주와 멋진 노래, 랩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축제의 장소에서 즐겨 부르는 ‘아라빠야’ 노래를 음악회에 모인 모두가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접해 보지 않아서 생소하고, 어려웠을 클래식 음악에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함께 호응해 준 프놈끄라움 마을의 아이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흐르는 땀만큼, 은혜와 사랑도 풍성한 하나투어와 함께한 문화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꾼 뿌레야 예수!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베트남 VIETNAM

# "나눔이 무르익는 베트남입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인 가을은 사람의 마음까지 풍요롭고 넉넉하게 해주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1년 12달이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추석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마음이 깃든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며, 주변 분들에게 월병(Moon Cake)을 나눔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풍성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와 LOTTERIA기업체, K.I.S오케스트라에서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월병을 선물해 주



1 월병

셨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려도 마음만큼은 늘 한가위 같으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와 LOTTERIA기업체, K.I.S오케스트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병(Moon Cake)’의 의미처럼 보름달 같은 월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은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와 LOTTERIA기업체, K.I.S오케스트라처럼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받으실 때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이 될 한국의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베트남다일공동체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K.I.S오케스트라

##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3 LOTTERIA



4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필리핀 PHILIPPINES

# “한 해 동안의 사랑에 살라맛 뽀~~”

어느새 올 해도 세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은 이제 겨울에 접어들어서 눈발 휘날리는 은빛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필리핀은 사시사철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눈을 맞아 본 적이 없고, 영하의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후원천사님들이 영하의 날씨에서도 추위를 참아가며 일해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따뜻한 햇살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람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탄절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라맛 뽀~!!!

##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 필리핀 다일공동체**
- 이명현 원장** Mobile (+63)916-517-5892  
emhok@dail.org
- 필리핀 다일공동체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299229** 예금주: (사)데일리다일

---

- 문의** 02-2212-8004
-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 네팔 NEPAL



## 신두팔촉 꿈퍼 고아원과 카트만두 밥퍼를 위해 기도

신두팔촉에 세워지고 있는 고아원은 후원금이 모자라서 공사가 석달 동안 중단되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후원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모아주신 후원금을 전달받아서 공사가 재개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빨리 지어지기 보다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네팔다일공동체의 원장님과 스텝들이 공사현장에 찾아가 내부 이곳저곳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색빛 철근과 회반죽으로 칠해진 기둥들로 이리저리 엮혀져 있는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붉은 빛 벽돌들이 3층 높이까지 쌓여 따뜻한 빛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번듯한 고아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내부에서도 각 장소에 맞는 공간이 지어져 아이들이

생활할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고아원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일품입니다. 울창한 산맥과 고아원 앞에 흐르는 강이 한데 어우러져 자연 속에 있는 고아원은 그림을 이룹니다.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을 더욱 크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쉬며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 카트만두 밥퍼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카트만두 다일공동체의 밥퍼와 유치원, 호프스쿨 운영 허가가 아직도 심사중으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속히 매년 갱신되는 허가가 나와서 다시 밥퍼와 유치원, 호프스쿨이 시작되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 포카라 사업 허가

2014년 4월 8일, 포카라에 빵퍼를 개원하여 5년간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빵을 먹는 많은 아이들이 전보다 키도 크고 살도 찌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빵퍼도 더욱 성장하여 포카라에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NGO리뉴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열악한 네팔 상황에서 빵퍼가 올 해는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지난 7월부터 빵퍼 사업이 잠재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비록 빵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

에게 전해줄 순 없지만 다시 만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포카라 빵퍼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금 빵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중, 지난 9월 3일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포카라 사역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팔 땅의 아이들이 늘 아이답게 웃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아이들의 배고픔을 책임지고 따뜻한 빵으로 희망과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매년 이루어지는 NGO리뉴를 위하여, 포카라 빵퍼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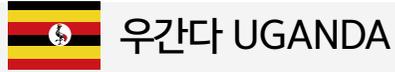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지난 5월에 실시한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에 이어 2학기 방학을 맞아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청소년 프로그램 설문 조사 결과 영어와 성경공부 시간이 다들 유익했고 동물원 견학도 아주 좋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화도 한 편 봤으면 좋겠다고 간식을 먹을 때 빵과 주스도 좋지만 우유를 넣은 따뜻한 옥수수 죽을 먹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어 이번에는 우유를 넣은 옥수수 죽을 빵과 함께 아침으로 제공하였는데요.

지난 1학기 청소년 프로그램 후 2학기 성적표를 검토하니 아이들의 영어 성적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아 면담을 통해 알아보니 교과서 값이 비싸서 책을 갖고 있는 학생이 36명 중에 단 1명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교실에 1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앉아 있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앞자리는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 차지기 때문에 어두운 교실에서 칠판에 한 번 적히고 지워지는 수학공식을 외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 버스는 꿈과 희망을 싣고

니다. 또한 다른 과목도 교과서 없이 공부하며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바하티 중학교의 수학 선생님을 섭외하여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기초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재도 아이들 수만큼 마련하여 아이들이 노트에 필기하며 마음껏 공부하였고 오전 시간에는 계속해서 리차드 목사님과 성경공부와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리더십을 키우는 팀빌딩 시간도 가졌습니다.

집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하고 돌을 깨거나 다른 일들을 하며 자신의 용돈과 수업물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이 3주간 빠지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우간다 현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난 후 문화 탐방으로 '진짜' 지방에 위치한 나일강의 발원지인 빅토리아 호수와 우간다에서 가장 큰 설탕 공장 중 하나인 '루가지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2~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 버스 2대에 올라탄 아이들은 금새 사춘기 소년, 소녀가 되어



2 루가지 설탕 공장 견학



3 너희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

행복하고 신나는 마음에 넘치는 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수학을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견학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는 아이들의 고백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3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와 수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 잡히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탐방을 통해 견문이 넓어지고 많은 도전을 받아 우간다를 이끌어 나가는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등 중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의 교과서와 교재도 비치하고 유익한 책도 구비해서 아이들이 학교 길에 들려 공

부도 하고 방학 때면 책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밥퍼센터의 방 한 칸을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집에 가면 전기도 없고 어두컴컴한 집 안에 책상 하나 없는 아이들이 밥퍼센터에서 공부할 때 학습 능률이 오르고 공부에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 탄자니아 다일청소년축구팀을 응원해주세요!

잠보! 반갑습니다!

세계 빈민촌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겠지만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놀이가 축구입니다. 탄자니아 국민들도 축구를 가장 좋아해서 어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도 TV로 축구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축구공이 없어도 비닐들을 뭉치고 끈으로 묶어서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축구화나 운동화도 없이 맨발이라도 정말 신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쿤두치 밥퍼센터 앞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맘껏 축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밥퍼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중심

으로 다일청소년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밥퍼센터의 이브라 총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22명의 선수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사실 이브라 총무는 모로고로라는 지방도시의 프로축구팀 선수출신으로 다일청소년축구팀이 만들어지길 늘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변한 축구화와 유니폼은 없지만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른 아침에 모여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들 중에서 장차 메시,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 탄자니아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다일청소년축구팀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탄자니아 다일청소년축구팀



2 방학을 맞아 엄마와 센터를 방문한 무싸



3 특수학교에서 목발없이 잠시 서있는 무싸

## 무싸 라마다니의 재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번 결연아동인 무싸 라마다니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잘 걷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잠시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병명과 치료를 위해 많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무싸의 한국 결연후원자(주병규님 가족)께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싸의 후원자님은 의사여서 더욱 관심을 갖고 무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무싸는 탄자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편입하게 되었고, 매일 재활훈련을 통해 목발을 이용해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점점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후원자님 가족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아주 기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싸가 이렇게 특수학교로 편입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며 상태가 점점 호전될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성원해 주신 주병규 후원자님 가족 덕분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무싸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어 친구들과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 미국 AMERICA

##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난 8월 미주다일공동체에 아주 반가운 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한국 다일공동체 본부에서 김연수 상임대표님이 아틀란타 미주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어 미주다일공동체 본부 가족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팔다일공동체에서 진행중인 신두팔축 고아원 건축이 중단된 상황을 많은 미국에 계신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어 네팔 고아원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틀란타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다시 아틀란타로 이동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만나는 분들마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2015년 대 지진 때 많은 고아들이 발생한 신두팔축 지역의 40여명의 고아들을 위하여 네팔다일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아원 건축 사업이 후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만나는 분들마다 네팔다일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 하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뜻을 같이 해 주시기로 결단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 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미주다일공동체의 후원자 분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 분 한 분 뜻과 정성을 모아 주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개인이, 그리고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단체의 회원들이 모임에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을 담은 손 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 시켰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진심을 전하였더니 많은 분들이 그

진심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네팔다일공동체 후원 모금 활동을 통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그 진심이 통하고 전달이 된다는 것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모아진 후원금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것은 고아원 공사 중단과 함께 중단되었던 카트만두의 마느하르 빈민촌에서 진행하는 밥퍼와 유치원, 호프스쿨 운영 재개 허가가 아직 마지막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밥을 먹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어린 이들에게 속히 따뜻한 밥을 먹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네팔다일공동체를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분들은 미주다일공동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70-813-0899 김고운 원장) 이번 후원모금을 위해 미주 각지에서 귀한 성금을 모아주시 후원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지진으로 집과 부모를 잃은 네팔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2015년 대지진으로 부모님을 잃은 네팔의 어린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이 필요합니다. 현재 네팔 지진피해지역에 지진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 주실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2015년 대지진으로 부모님을 잃은 네팔의 어린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이 필요합니다. 현재 네팔 지진피해지역에 지진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 주실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세요.

9/9/2018  
신앙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 대한민국 KOREA

## ‘외로운 사람들끼리...’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고, 가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아픈 사연으로 만날 수 없어 추석이 다가오는 것을 싫  
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의 사연으  
로 외로운 시간과 암의 사투로 인해 힘든 하루를 살아가  
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  
해서 재미있고 정성이 담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에

서 많은 정성과 관심을 주셔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프로그램
9.22(토)	10:00~12:00	시낭송 대회, 한가위 음식 만들기
9.23(일)	13:00~15:00	명절선물 전달 / 투호놀이
9.24(월) 추석	10:00~12:00	작은 노래자랑
9.25(화)	09:00~14:00	영화관람 및 외식
9.26(수)	10:00~14:00	고스톱 & 맛집탐방

9월 22일(1일차)에는 3층 프로그램실에서는 현재 서  
울시 보조금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낭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시낭송 대회를 진행하게 되  
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명절을 알리는 음식만들기를 자  
원봉사자와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호박전, 동태전, 잡  
채, 갈비찜을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3일(2일차) 오전에는 1층 복도에서 다가온 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두툼한 상하의세트를 배분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입소자인 남○성님은 “추석 지나고 나

면 금방 차가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옷이 필요로 했는데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서 환한 미소로 받아가셨습니다.

9월 24일(3일차) 오후에는 원장님과 입소자들 함께  
점심식사를 하시는 가지시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는 작은노래자랑을 진행하여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숨겨뒀던 노래실력과 춤사  
위를 보여주며 입소자분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 (3일차)추석점심식사



2 (4일차)영화시청

9월 25일(4일차)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문  
화활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명절  
인 만큼 봉사자함께 ‘안시성’영화시청을 하였습니다. 프  
로그램에 참여하신 김○복님은 “시설 안이 아닌 밖으로

나가서 영화를 정말 오래만에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화관람을  
통해서 풍요로운 한가위 하루를 보냈습니다.



## 다일문화대학을 통한 새로운 발걸음

다일문화대학 2학기 첫수업이 9월 5일 한신대 이기호  
교수님의 "한반도 평화와(새로운)아시아 구상"이란 강의  
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80년대 포크음악의 선  
두주자로 널리 알려지고 "가시나무"를 작사 작곡하신  
음유시인 하덕규교수님(현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목사)과 함께 노래하며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도 단 한 주도 흘러 들을 수 없는 쟁쟁한 강  
의진이 포진했습니다. 동대문구 구청장이신 유덕열 구  
청장님을 비롯해 50+ 전문 스마트폰 & SNS 강사이신  
박성래대표님, 한국인성상담교육원 문화강원장님, "말  
보다 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김상민 전의원님,  
전 산림청장님이셨고, 현 한국산림아카데미 조연환이사  
장님, 성공회대학교 이지상교수님(가수 겸 작곡가), 사  
람 중심의 경영 마인더스아이티 이형우대표님, "미래를

위한 행복한 건강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염창  
환 병원장님, 국내1호 보컬 코치로서 수많은 국내 유명  
가수, 뮤지컬배우 들을 배출해 내신 파워보컬 원장님이  
신 노영주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앞으로 남은 국민배우 박상원 홍보대사님의 강의  
와 암을 극복하신 체험적인 강의를 하실 박혜숙 교수님,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님과 마지막 강의를 다일공  
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의 강의로 이번 학기 다일  
문화대학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명 강의로  
다시금 삶의 질을 높이고 큰 도전을 받은 작은 천국 가  
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 대한민국 KOREA

밥퍼와의 인연은 약 4년 정도 되었지만 10년은 훨씬 넘는 느낌을 주는 따뜻한 가족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봉사와 나눔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밥퍼를 찾으시는 특별한 가족 중에서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엄마(김선숙님)와 함께 밥퍼 봉사를 다니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스스로 봉사를 오게 된 귀한 사연입니다. 그 주인공인 황이진(20)양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함께 밥퍼 봉사를 하며 나눔에 대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해 배우게 된 황이진양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1. 밥퍼에 처음 방문하시게 된 때가 언제인가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인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밥퍼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2.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119응급구급대원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처럼 많은 의로지식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전문적인 일은 힘들더라도 저의 조그마한 행동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귀중한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작지만 제가 가진 힘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평소 이러한 저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다일공동체 밥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1-2번씩 봉사를 하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 3. 밥퍼에 함께 봉사하시는 가족들이 계시는 걸로 알

### 고 있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봉사를 하며 느끼는 의미 깊은 감정을 혼자보다는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느끼고 싶어 가족단위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밥퍼 봉사를 할 수 있게 매번 도움을 주시는 가장 주축이신 엄마와 이모, 매번 힘들다는 말을 스스로 없이 하지만 알고 보면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나눔의 감사함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는 남동생 석진이와, 바쁜 와중에도 시간만 나면 봉사하러 오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촌 규연, 보연이, 마지막으로 새내기 대학생으로서 뽀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보람찬 봉사활동을 항상 기다리고 꾸준히 하고 있는 저, 황이진. 이렇게 총 6명의 가족들이 함께 밥퍼 봉사를 매월 1-2번씩 하고 있습니다.

### 4. 평소 섬김(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이모의 영향으로 많은 활동들을 몸소 체험해보고 경험하며 자라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돕고싶다는 생각으로 봉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밥퍼의 구호처럼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5. 섬김(봉사)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다일공동체에서 제작하는 인쇄물을 읽던 중 저의 소신과 일맥상통함을 느껴 마음 속에 새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눔은 한명이 비춰주면 그 빛을 반사시키고 또 반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후에는 반사된 많은 빛으로 인해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울과 같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에게 비춰지는 빛을 다



● 밥퍼에 봉사 온 황이진 학생 가족분들

른 곳에 또 다시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처럼 봉사란 단 한 사람 한사람의 진심어린 마음이 모여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여야 진정한 빛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봉사란 자신이 누군가에게 형식적인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힐링 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 6. 밥퍼에 대한 바램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늘 변함없이 그곳에서, 음지에 계신 분들 한분 한분 다시금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삶의 희망, 내가 살아있음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밥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주는 밥퍼 화이팅!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꾸준한 봉사활동중인 황이진 양

##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후원 관련 안내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일과 함께 동행해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늘 변함없이 다일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온 마음 다해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일공동체는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지법인에서 국내, 해외사역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사역은 외교부 관할의 사단법인에서 진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다일공동체의 해외사역은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에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지난해 11월 11일,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을 설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은 현재, 해외 무상급식사업과 1:1 아동결연, 네팔 고아원, 탄자니아 비전센터 건립 등의 해외 아동 꿈퍼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각각 분리됨에 따라, 국내사업 후원회원과 해외사업 후원회원의 후원금 입금계좌의 분리가 불가피하여, 지난 10-11월, 유선으로 해외사업 후원회원님들의 후원금 입금 계좌의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후원금 입금 대표 계좌변경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재동의를 너그럽게 양해해주신 후원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선 연결이 어려워 변경해 드리지 못한 회원님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일복지재단 계좌로 후원금 출금이 진행됩니다. 계좌 변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02-2212-8004**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출금계좌 변경된 회원님들의 경우, **2019년 1월 후원금부터 데일리다일계좌로 첫 출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다일복지재단·데일리다일 후원관리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2212-8004->ARS 후원관련문의 1번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장** 최일도  
**사무총장** 최홍  
**실무담당** 조예슬 주임 / 070-4099-9205  
박소연 간사 / 070-4099-9198

## 메리 크리스마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전 세계 결연 어린이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탄 되시고 행복 가득하신 새해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밥퍼나눔운동본부



### 우정희

우정희에서 청량리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밥퍼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처음부터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육, 음악,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여서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전 국악과 가요로 흥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해주시고 어르신들께 사랑을 전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파 산악회

이번 달도 어김없이 방문하신 알파 산악회 팀! 매달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위해 밥퍼와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 재료 손질 등 일감이 많고 날씨로 인해 걱정되었지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항상 밥퍼를 생각하고 봉사와 후원으로 어르신들께 사랑을 나눠주는 알파 산악회가 최고야!

### 박경숙, 반수진

박경숙님과 반수진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밥퍼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800명 이상 식사하시는 청량리 밥퍼에 봉사자가 없을 때면 바쁜 와중에도 참여하셔서 힘들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저희밥퍼와 함께해주세요~

## 베트남



### 김주영작가님

손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일이 아말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에서 공영방송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김주영 작가님이 밥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밥퍼를 방문해 주신 김주영 작가님은 그야말로 산타할머니^^였습니다. 한아름 가득 선물을 전해주셨으며,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신 김주영 작가님을 다시금 또 뵙고 싶습니다.

### Happy Cook 류수희 차장님과 아이들

밥퍼의 요청이라면 항상 YES!를 외쳐주시는 류수희 차장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밥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밥퍼에 꼭 필요한 솜을 준비해 오시는 센스!! 참 감사합니다.

K.I.S에 재학 중인 보민이와 보현이의 그 마음이 좋은 영향력으로 번지기를 희망하며, 밥퍼에서 자주 보았으면 합니다.



## 우간다



### 자원봉사자 학생의 대학진학

작년 12월에 시작한 밥퍼의 처음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구슬 땀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권용배 국방무관님 가정인데요, 장남과 차남인 권반석, 권의인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출국 전날에도 밥퍼 봉사를 하였습니다. 현지 적응도 잘하고 모든 학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천국



### 어머니와 아들! 가족 봉사자

어머니와 두 아들 한가족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봉사시간이 필요하면 어머니가 예약해주고 고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머니랑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던차에 아들이 자폐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눈물을 보이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맘을 뚫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고 싶어 봉사를 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나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두 형제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다일작은천국을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어르신들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시간 내서 봉사 해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김포외고 박소영

공부하기도 바쁜 18살!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봉사 오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외고 박소영 학생이 다일작은천국을 방문 해주셨습니다. 딱 봐도 스마트해 보이는 외모에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다일작은천국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봉사자입니다. 다일작은천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시켜도 믿음직스러운 봉사자입니다. 항상 새롭고 많은 것을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하며 나중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봉사하고 싶다는 박소영 학생.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대학에 진학도 잘되기를 다일작은천국 직원들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 동대문구 사랑의 클린 봉사 자원봉사팀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봉사를 모집하여 다일작은천국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랑의 클린 봉사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대부분이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자들이라 봉사자 OT를 진행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오는 봉사인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였습니다. 입소자실 청소와 프로그램 간식을 준비해주고 정서지원 프로그램에도 어르신들을 도우며 예전에 왔던 봉사자들처럼 어색하지 않게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봉사 모집에 참여해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해주세요!

캄보디아 (씨엠립 본원)



황채순 목사님과 즐거운 순복음교회

캄보디아다일수상유치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채순 목사님께서 즐거운 순복음교회 비전트립팀과 함께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멋진 악기공연과 태권도 시범, 밥퍼, 그리고 수상유치원과 오마누억교회 등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사랑 넘치는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선물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특별히 오마누억교회를 방문해 주셨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며 그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기도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곤 브레야 예수!



전라남도 의사회

다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네팔에 이어 사랑 가득한 치료의 손길로 캄보디아까지 돌보시는 김용덕 장로님과 전라남도의사회 의료선교팀이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씨엠립 프놈끄라움 센터와 더불어 오마누억, 프놈펜 까지 뽀뽀한 일정 가운데서 많은 곳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의료선교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려 가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전라남도의사회 의료선교팀 가족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으로 협력해주시며, 다시금 방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곤 브레야 예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에서 프놈펜지부로 찾아와서 밥퍼, 빵퍼 위생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날은 초등학교생들이 와서 빵퍼봉사와 위생봉사를 함께 하였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밝고 또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보는 교사들과 우리스텝들이 마음이 뿌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날에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와서 밥퍼봉사와 위생봉사를 해주셨는데 한 아이라도 더 씻기고 더 밥 먹이고자 하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틀 동안 빵퍼봉사, 위생봉사, 밥퍼봉사를 열심히 해주신 강원도 교육청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은행 다문화장학재단&우리은행 다문화 가정&우리 파이낸스 캄보디아

우리은행 다문화장학재단에서 프놈펜다일공동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공연들을 한 가득 준비해서 멋진 공연들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에 공연자 분들은 더욱 열심히 공연에 집중하고 하나라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열심히 공연해 주셨습니다. 또한 밥퍼봉사도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눈을 맞추면서 식판을 건네는 모습에 아이들은 순수한 미소로 식판을 받았습니다. 프놈펜다일공동체로 찾아와 주셔서 멋진 공연들과 밥퍼봉사와 위생봉사를 해주신 우리은행 다문화장학재단&우리은행&우리은행 다문화 가정&우리파이낸스 캄보디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http://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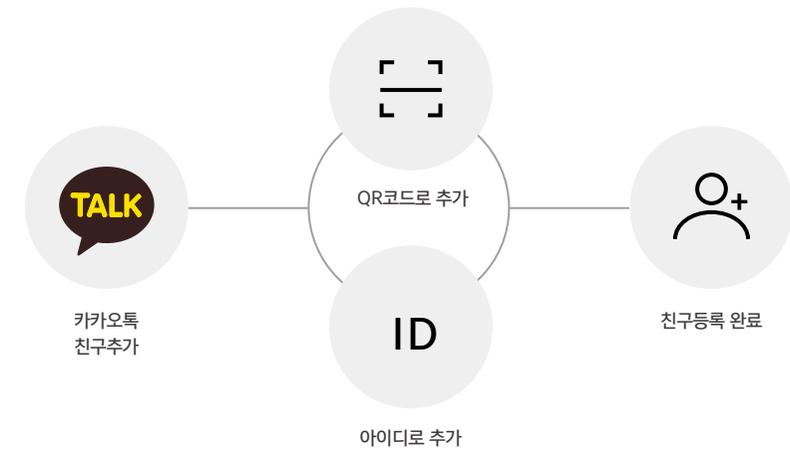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후원신청서 작성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

다양한 SNS로 다일공동체 만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서 다일공동체 소식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친구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2018년 9월 <b>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b>	PUN KRISHN, 강경남, 강경미, 강남규, 강성현, 강영근, 강진영, 건대행정대학원, 고새한, 고새함, 광경진, 김경한, 김공섭, 김광복, 김금철, 김난순(동사랑교회), 김대수, 김도희, 김동한, 김만기, 김명숙, 김미성, 김민철, 김병무, 김분임, 김선아, 김선옥, 김선희, 김수빈, 김승모(장현숙), 김여엽(동사랑교회), 김연옥, 김영수, 김영숙, 김영임, 김영진, 김용관, 김유선, 김유자, 김은경(박퍼후원), 김은명, 김은자, 김은혜, 김은혜, 김자이, 김정근, 김정란, 김진숙, 김진우, 김찬영, 김철희, 김필선, 김학관, 남기인, 남미인, 노영신, 노태식, 마틴LyChung, 무명-박퍼재건축, 문선일, 문희주, 지선옥, 민병돈, 박가원, 박금자, 박미애, 박선희, 박선희, 박성우, 박수영, 박영희, 박은주(유서연), 박정원, 박종훈, 박지선, 박지영, 박창섭, 박퍼스팀, 박퍼재건축, 백남열, 변선희, 서병연(동사랑교회), 석공광, 석명환, 석영옥, 석영자, 석윤미, 석운숙, 석종현(기부금), 석종환, 선우순애, 성원스포츠클럽, 세화고, 송영길, 송창준, 숙대강정애, 신동업, 신명수, 신상용, 신생글웅달생, 신일고교박한결, 신일고교신병철, 신재하, 신재희, 신재은, 신재신, 신홍식, 안찬규, 안철주, 양근모, 양동준, 양정은, 연세자연내과의원, 오기석, 오진옥, 우정희, 유길정, 유숙, 유승연, 윤덕현, 윤승지, 윤현숙, 이동영, 이루하, 이명선, 이명수, 이명숙, 이명애, 이명옥, 이명환, 이미순, 이미연, 이상해, 이상희, 이새한, 이상실(금곡교회), 이수진, 이숙희, 이아정, 이안순, 이영하, 이영호, 이예나, 이오, 이원홍, 이은영, 이점임, 이종택, 이준현, 이지은, 이지은, 이지훈(임은덕), 이충호, 이하림, 이하나, 이현덕, 이혁, 이현숙, 이현실, 임광식, 임숙자, 임순옥(김종대), 임우진, 임종규, 장기경(동사랑교회), 장미, 장시아, 장은주, 전계영, 전대규(신혜선), 전봉준, 전영숙, 전영주, 전우석, 전지호 민호, 정동석, 정석중, 정승훈, 정연순, 정영실, 정영희, 정재현, 정혜숙, 정희숙, 조성훈, 조운이, 조재준, 조현민, 조희자, 주남수, 주생사향주, 진수경, 최경동(소나무), 최미경, 최병상, 최병탁, 최산, 최성진, 최원삼, 최재민, 최정아, 최천희, 추현양(유숙이), 포일남교회김기영, 함지웅, 함창화, 함요섭, 홍성진, 홍성표, 홍영남, 홍지훈, 홍창섭, 황중덕, 황현수, 황효선, 흰돌목
--	---

<b>박퍼나눔운동본부 신규후원</b>	<b>신규후원</b> 우정희, 건대행정대학원, 김하은 <b>후원물품</b> 김소연 - 아이스크림 후원	<b>네팔 신규후원회원 목록</b>	<b>후원금</b> 박소연, 박종명, 서범석
----------------------	---	---------------------	--------------------------

<b>중국 현지 후원자 및 물품 후원자 명단</b> 2018.8.6. ~ 2018.10.7	<b>후원금</b> 김성재(Obey & Praise), 김학용, 요짱, 왕하이바, 왕하이타오	<b>우간다 신규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b> 2018.8.6. ~ 2018.10.7	<b>후원금</b>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최양숙, 한규재, 박종배 <b>후원물품</b> 권용배(비스킷, 막대사탕), 배종호(비스킷, 막대사탕)
---	---	---	---

<b>베트남다일공동체</b> 2018년 10월 5일까지 현지후원금	A PLUS, K.I.S.오케스트라, LOTTERIA, NAHAL, POSCO DAEWOO VIETNAM, POSCO ICT, VEGAS, 김주영님, 김혜경님(에스터님), 닥터카,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b>후원자 / 후원물품</b> ARTISAN(뽕), 노엘(달걀), 안연숙님(야쿠르트), KIS오케스트라(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월병), LOTTERIA(월병), POSCO ICT(쌀), VEGAS(라면), 노엘(계란), 류수희님(짬뽕),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월병)
--	---

<b>캄보디아 신규 후원 내역 대상기간</b> 2018.8.6. ~ 2018.10.7	<b>후원자</b> KUCSS 대사협 증기봉사단, Lim Sothy, Rocky Cafe, 갈릴리셀, 경기동노회 세계선교부, 다문화 자녀 글로벌 문화체험, 대박, 대전 임마누엘교회, 등불교회, 등불교회(오택운), 마산 행복한국교회, 박송자, 박종희, 뷰티풀 마인드, 산성교회, 상심리교회,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이사 권대진, 새마을문고 남해군지부 창선면 분회장 강향년, 서유선님 가정, 설운택, 수원YMCA, 슈표교 교회, 양주 주내교회, 양평군청, 오동영 성도님&김찬숙 장로님,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 우리은행 다문화 가정, 이명애, 이예지&서효영, 이현덕, 익명, 임시형 수민,윤하,규민, 전라남도 의사회, 즐거운순복음교회, 진해소망교회, 최광희, 최예지&예준, 충신교회, 충신교회(박태식,박주연,김경희), 카도, 프놈펜 제일교회, 하나투어문화예술희망여행, 해미교회, 행복한국교회, 황채순 목사, 회천중학교, 회천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 <b>후원물품</b> 장난감 :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 체험,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 우리은행 다문화가정 식료품 : 이예지&서효영, 황채순 목사 의류 및 신발 : 김계숙, 리일, 수원 YMCA 오락사절단, 회천 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학용품 : 수원 YMCA 오락사절단, 전라남도 의사회, 회천 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생필품 : 전라남도 의사회, 회천 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잡화 : 리일, 수원YMCA 오락사절단, 전라남도 의사회, 회천 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의약품 : 이예지&서효영, 전라남도 의사회
--	--

·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 후원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b>정기후원</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만원의 행복(월 1만원)</b>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b>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p> </div> </div>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천사기업(월 10만원 이상)</b>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천사교회(월 10만원 이상)</b>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일시후원</b></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b>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p> </div> <hr/>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b>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p>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b>후원계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금주 : 다일복지재단</b>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li> <li>· <b>예금주 : 다일작은천국</b>                      우리은행 1005-801-848969</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미주 및 캐나다 다일공동체 후원문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금주 : (사)데일리다일</b>                      네팔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45                      베트남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16                      우간다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61                      중국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03                      캄보디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32                      탄자니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필리핀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29</li> <li>· <b>새로운 다일공동체 해외분원 계좌입니다.</b>                      사단법인 데일리다일로 다시 태어나는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을 응원해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heck 후원</b>                      Pay to the order :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                      Pay to the order :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li> <li>· <b>Debit / Credit card / ACH 후원</b>                      미주다일공동체 오피스                      770-813-0899 / usa@dail.org                      로 문의해 주세요.</li> <li>· <b>캐나다 다일공동체 오피스</b>                      1-416-824-4831 로 문의해 주세요.</li> <li>· <b>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b>                      (dailusa.org)에서도 회원가입후                      후원신청 가능합니다.</li> </ul>
--	--	--

##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름(기업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남/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13자리(10자리) 모두 기재 부탁드립니다.(미기재시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연락처  SNS 수신 동의  이메일  이메일 수신 동의

주 소  우편물 수신 동의

###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 정기후원(국내)

무상급식(밥퍼)  의료지원(천사병원)  대복지원(밥상나눔)  전체사업 후원

#### 후원금액

월 1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 월 \_\_\_\_\_ 원

####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기타 \_\_\_\_\_ 원

#### 캠페인후원

밥퍼 재건축후원  거리성탄(방한복)후원  
 1구좌 3만원  10구좌 30만원  100구좌 300만원  기타 \_\_\_\_\_ 원

#### 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 (신용카드 후원자는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겠습니다.)

####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 해당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을 경우, 매월 말일(평일)에 재출금됩니다.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 \_\_\_\_\_ (서명)

## 데일리다일 회원 신청서

### 후원회원 정보

이름(기업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남/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13자리(10자리) 모두 기재 부탁드립니다.(미기재시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연락처  SNS 수신 동의  이메일  이메일 수신 동의

주 소  우편물 수신 동의

###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 정기후원(해외)

무상급식(밥퍼)  의료지원(천사병원)  교육지원  전체사업 후원  
 1:1아동 결연(월 3만원 지정) (기타 : \_\_\_\_\_ 명)

#### 후원금액

월 1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 월 \_\_\_\_\_ 원

####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기타 \_\_\_\_\_ 원

#### 캠페인후원

네팔 고아원 건립 후원  탄자니아 비전센터 건립 후원  
 1구좌 3만원  10구좌 30만원  100구좌 300만원  기타 \_\_\_\_\_ 원

#### 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후원자는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겠습니다.)

####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 해당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을 경우, 매월 말일(평일)에 재출금됩니다.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데일리다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납입하신 후원회비는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데일리다일의 후원회원으로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 \_\_\_\_\_ (서명)

##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 다일공동체

- 1247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 17-3
- 031-584-7478

###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02-2212-8004

### 다일복지재단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02-2212-8004

### 밥퍼나눔운동본부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02-2214-0365

###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02-2213-8004

### 설곡산다일공동체

- 1247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 031-585-2004

### 다일 평화의 마을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17-3
- 031-584-7478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씨엠티 본원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855-12-808-861

#### 프놈펜 지부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855-17-367-867

### 필리핀 다일공동체

#### 까만씨 본원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63-916-517-5892

### 필리핀 다일공동체

#### 까만씨 본원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63-916-517-5892

### 네팔 다일공동체

#### 카트만두 본원

-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977-98494-58330

#### 포카라 지부

- 9 Shivatol Buspark Pokhara Kaski, NEPAL
- +977-98032-70824

### 중국 다일공동체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苑53栋1单元601,602
- +86-433-753-8004

### 우간다 다일공동체

- P.O Box 85 Kisubi, UGANDA
- +256-771-072-382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255-629-426-641

### 베트남 다일공동체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84-90-382-0918

### 미주 다일공동체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1-770-813-0899 / (Fax) +1-770-813-0133
- www.dailusa.org

### 캐나다 다일공동체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1-416-824-4831



##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데일리다일 이사장

일정안내	2019년 영성수련	1월	195기 1월 7일 ~ 11일 - 1단계 28기 1월 14일 ~ 18일 - 3단계 53기 1월 21일 ~ 25일 - 2단계	2월	196기 2월 4일 ~ 8일 - 1단계 29기 2월 11일 ~ 16일 - 3단계 54기 2월 18일 ~ 22일 - 2단계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단체사용신청 및 개인피칭)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입금계좌 : 농협 351-1035-5864-93 (예금주 : 다일공동체)</b>				
신청 및 문의	<b>문의</b>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b>홈페이지</b> sgdail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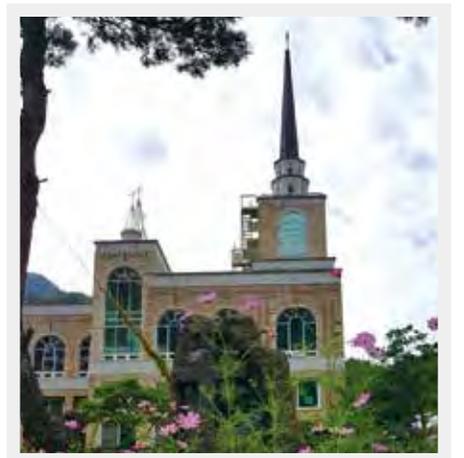
##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  
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 주일공동예배 :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설곡리 105-3)  
**Tel.** 031 585 2004(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스타렉스가 출발합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밥퍼 재건축을 위한 기도

밥으로 오신 예수님!  
밥퍼나눔운동본부로 하여금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삼십년간 천만명 이상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건물은 임시 가건물입니다.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튼튼한 시설로 재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특히 노숙하는 형제들과 고독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십만명이 넘는 밥퍼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사 밥퍼 재건축에 참여하게 하시어  
동대문구의 명소가 되며  
서울시의 나눔과 섬김의 아이콘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밥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며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뜻한 한끼가 필요한 이들에게 밥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밥퍼 재건축 동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전화 02-2212-8004 홈페이지 [www.dail.org](http://www.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9676(예금주 : 다일복지재단)